

# 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9년’ 흥망사

## 약탈정치

강준만·김환표 지음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고·소·영’(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신도, 영남출신)이라는 신조어로 조롱받았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평균 25억6000만원, 금융자산은 11억3000만원을 넘었다.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만 개의 자리에 ‘보은(報恩) 낙하산 인사’를 했다.



(私益)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며 “‘약탈국가’의 정치인과 관료는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정치와 행정을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신문 칼럼 등을 인용해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17대 대선에서 유효투표수의 48.7%를 획득해 당선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조각(組閣)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4대강 사업으로 변질돼 혈세를 낭비했고, 공기업에 논공행상(論功行賞)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며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

박근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량평정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7시간 동안 행차가 지연될 정도로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며 탄핵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을 ‘약탈공화국’으로 만든 인프라는 부동산이다. 1988년에 노동자 평균 임금이 6배 오를 때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임금 상승치의 43배나 뛰었다.

저자는 “이명박·박근혜는 한국 정치를 비취주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정권이 부패하는 원인은 ‘승자 독식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저자는 “집권 후 논공행상이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온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중립적인 시민사회에 넘김으로써 승자독식의 전쟁터의 수단이 된 선거의 공공성을 다소나마 회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인 ‘한국 정치를 비취주는 거울’이다. 2012년 7월 24일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는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2017년 3월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광주일보 DB>

보자”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를 향해 파죽지세로 돌격하던 1940년 5월 13일 영국 윈스턴 처칠이 총리 취임연설에서 ‘내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듯이,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위기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앞선 두 정권의 실패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인물과 사상사·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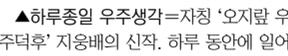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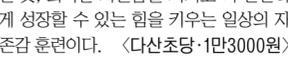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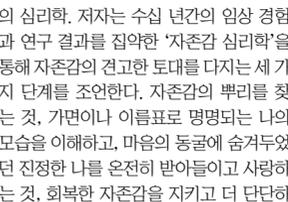
## 새로 나온 책

▲파편화한 전쟁=1989·90년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 인류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격화된 중동 및 근동에서의 다양한 전쟁들, 9·11 테러, IS의 전방위적 폭력과 테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국가 간 전쟁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세계 사회는 당혹해하고 있다. 책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현재의 테러리즘까지 전쟁 폭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추적한다. <김출판·2만2000원>

▲내 운명을 바꾼 한글자=어떻게 한글자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저자가 말하는 ‘한글자’는 ‘크다’라는 뜻을 담은 순우리말 ‘한’글자다. 저자는 낮추고(flower), 내려놓고(down), 멈추라(stop)고 말한다. 나를 낮추면(low) 꽃(flower)처럼 향기가 나고, 나를 집착에서 내려놓으면(down) 모든 것을 얻고(own), 지나친 욕망을 멈추면(stop) 정신의 최고경지(top)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멘토프레스·1만6000원>

▲넥스트 모바일 : 자율주행혁명=컬럼비아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인 호드 린슨과 혁신적인 기술을 주제로 글을 쓰는 작가 펄바 칼만이 무인자동차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면서, 무인자동차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기술을 설명해나간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손을 잡고 무인자동차의 등장을 우리 사회의 다음번 ‘아폴로 모멘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더퀘스트·1만9000원>

▲자존감 심리학=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토니 헵프리스가 전하는 따뜻한 치유



의 심리학. 저자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약한 ‘자존감 심리학’을 통해 자존감의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세 가지 단계를 조인한다. 자존감의 뿌리를 찾는 것, 가면이나 이름표로 명명되는 나의 모습을 이해하고, 마음의 동굴에 숨겨두었던 진정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회복한 자존감을 지키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상의 자존감 훈련이다. <다산초당·1만3000원>  
▲하루종일 우주생각=자칭 ‘오지랖 우주덕후’ 자유배의 신작.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주와 천문학의 접점을 찾은 저자는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우주에 관한 내용을 찬찬히 설명해준다. 책은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대중과 호흡해 온 저자가 가장 흥미로운 방법으로 독자들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극장의 명당자리, 야구장의 광수구, 드라마 재방송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 주요 우주 개념과 최신 천문학 이슈를 한바탕 수다로 펼쳐놓는다. <서해문집·1만6800원>

# 빛이자 어둠, 생명이자 죽음인 ‘검은색’ 의미 추적

## 이토록 황홀한 블랙

존 하비 지음

‘검은색은 색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이다. 앙리 마티스는 ‘검은색은 힘’이라고 말했고 르누아르는 ‘검은색은 색의 여왕’이라고 칭송했다. 이탈리아 화가 티토레토는 ‘색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검은색’이라고 단언했다.

‘빛이자 어둠이고, 생명이자 죽음’인 ‘검은색’의 의미를 추적한 책이 나왔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동중인 존 하



비 케임브리지 대학 엠마뉴엘칼리지 종신석학 교수가 펴낸 ‘이토록 황홀한 블랙-세속과 신성의 두 얼굴, 검은색에 대하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검은색’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색깔, 패션, 종교,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변주되는 블랙의 모습을 추적해 나간다. ‘블랙 패션의 문화사’를 펴내기도 했던 저자는 1981년부터 검은색

연구에 매진해왔다.

검은색은 어떤 물질로 가득한 상태일까? 빈 공간일까? 검은 색은 하나의 색일까? 아니면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에 불과한 것일까? 등 검은색을 둘러싼 의문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또 비옥한 토양과 타고 남은 재, 세련된 옷과 미망인의 상복, 한밤의 성적인 자극과 죽음·우울·슬픔 등 그 어떠한 색도 검은색처럼 정반대의 확고한 극단을 동시에 상징하지 못했다.

저자는 검은색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죽음, 공포, 부정의 의미하던 검은색은 차츰 신념, 예술,

사회적 삶의 구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책은 15세기 왕권을 상징하는 부르고뉴 궁전의 검은색부터 세련미의 극치로 불리는 20세기 사넬의 리브 블랙 드레스의 검은색을 이야기한다. 또 유럽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은색의 부정적 연상을 활용했는지 추적하고 로스코, 터너, 카라바조, 라인하르트 등 수많은 화가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검은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윌리엄 터너, 카라바조, 달리 등이 검은색을 주제로 그린 강렬한 그림 도판과 건축물, 패션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도 풍성하게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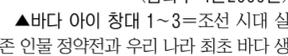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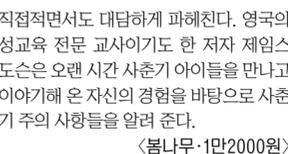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형, 나만 남으라고? =일하는 엄마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학교 수업을 끝마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엄마의 심정과 돌봐줄 사람을 따라 방과 후 시간을 떠돌아야 하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나고 있다. <라임·9800원>

▲뭘든 될 수 있어 =요시타카 신스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찔하기만 캐러터가 돋보이는 그림책, 빨래를 개고 있는 엄마에게 나리가 맞혀 보라며 퀴즈 게임을 시작한다. 무궁무진 변신을 하는 아이를 따라가다 보면 기발한 생각에 놀라는 것과 동시에 배꼽 빠지는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스콜라·1만2000원>

▲소년이 된다는 것 =거뭇거뭇한 수업이 나기 시작한 십 대 소년들의 주체할 수 없는 성과 상관계에 관한 깊은 호기심을



직접적면서도 대담하게 파헤친다. 영국의 성교육 전문 교사이기도 한 저자 제임스 도슨은 오랜 시간 사춘기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춘기 주의 사항들을 알려 준다. <봄나루·1만2000원>  
▲바다 아이 창대 1~3=조선 시대 실존 인물 정약전과 우리 나라 최초 바다 생물 도감 ‘자산어보’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만든 어린이 창작 만화이자, 바다 생물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생태 만화책. 작가 김충현의 상상력과 이종철의 섬세한 펜그림이 돋보인다. <보리·각권 1만20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국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일반공업지역 토지 8,367㎡ 건물 2,487㎡ 감정가 61억1천1백 ▶ 최저가 42억7천8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2천만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동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